

#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발화 용법을 통해 살펴본 ‘-에, -에서’에 대한 한국어 교육적 접근\*

박은정(계명대)

##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2 ‘-에서’의 실현 양상과 의미          |
| 2.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 3.3 ‘-에’, ‘-에서’ 둘 다 결합 가능한 용언 |
| 3. ‘-에’/‘-에서’의 실현 양상과 의미 | 4. 나가는 말                      |
| 3.1 ‘-에’의 실현 양상과 의미      |                               |

## 1. 들어가는 말

교착어적인 한국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문법범주의 하나인 조사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쉽게 학습되지 않는 영역이다. ‘조사’라는 문법범주가 없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조사 습득의 어려움을 모국어의 영향으로 보기도 했지만 일본어권 학습자에게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법범주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에’와 ‘-에서’의 의미를 표현하는 전치사

\* 본 논문은 2015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 습니다. [2015S1A5B5A07041931]

가 있는 영어권 학습자에게서도 이러한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2004)에서도 일본어 모어 학습자들이 모든 급수에서 '-에서'를 '-에'로 오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에'와 '-에서'는 한국어 초급 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한국어 초급교재에서 문법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사 '-에/ -에서'는 한국어 학습 초기에만 나타나는 오류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아래 예문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오류는 초급뿐만 아니라 중급, 고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문1)

- a. \*한국에 만나자.(미국, 개인 유튜브)
- b. \*2006년 한국에 유학생활동을 시작했습니다.(중국, 5급 석사졸)
- c. \*점심과 저녁은 식당에 먹습니다.(일본, 4급)
- d. \*이 배우가 전에 출연한 역할과 대비되는 스타일로 새로운 영화에서 출연하게 돼서 화제가 되고 있다.(6급)

위의 예문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중간언어로 구어와 문어에 나타난 문장이다. 본고에서는 부사격 조사 중 '-에/-에서'에 한정하여 이 두 조사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하여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론적 설명보다는 외국인 학습자가 '-에'와 '-에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지금까지 부사격 중에서 '-에/-에서'는 처소격에 한정하여 한국어 학습초기 '-에/-에서'의 오류에 집중하여 논의되었다. 특히 조사 사용의 누락이나 '-에/-에서'의 대치오류가 주를 이루었다. 조사 '-에/-에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에'와 '-에서'만의 단독 연구(이광호 1984)보다는 부사격 조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거나(허용 2001, 등) '조사 오류'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석주 외 2004, 김정은·이소영 2004 등). 그리고 특정 언어권과의 대조적인 방법으로 논의된 연구들이 있고(신효경 2008, 남수정 2010, 김정은 2004 등) 중간언어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다.(김정은·이소영 2004 )<sup>1)</sup>

먼저 조사 '에'와 '에서'만의 단독 연구인 이광호(1984)에서는 처격 '에'와 '에서'를 비교하여 '에'는 [+location] [+arrival] [-existence]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고 '에서'는 [+location] [-arrival] [+existence]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허용(2001)에서는 조사의 용법을 중심으로 어떤 조사가 어떤 상황에 쓰이는 가보다는 어떤 상황에 어떤 조사를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외국인 학습자가 알게 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실용적이며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위한 설명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도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황에 맞는 '-에/에서'를 사용하게 하는 데에 있다. 부사격조사 중 행위의 장소, 소재, 위치와 관련된 부사어에 쓰이는 조사 '-에'와 '-에서'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특히 '-에서'와 결합하는 동사들은 대개 '-고 있다'의 형태가 가능하고 '에'를 취하는 동사들은 '-아/어 있다'만 가능하거나 둘 다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유용한 것으로, 중·고급 학습자에게는 '-에'와 '-에서'의 비교에 있어 설명의 타당성을 더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석주 외(2004)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조사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권 화자의 경우 조사의 오류 중에서 전치사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특히 '-에')의 오류가 주격이나 목적격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석주 외(2004)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범주가 없는 격조

1) 본고에서의 분류는 '에'와 '에서'를 Riss에서 검색했을 때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2004) '일본어권 학습자의 조사 오용 양상'은 중간언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중간언어 측면의 논문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논문의 제목으로 분류하여 특정 언어권의 연구로 분류한 것임을 밝힌다.

사보다 의미범주가 있는 부사격이 더 많은 오류를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일본어권의 경우는 다른 언어권 학습자보다는 오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다른 조사에 비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오류가 높다. 중국어권의 경우 다른 언어권 화자보다 조사 오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특히 '-에서'는 중급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권의 경우도 조사 '-에서'의 오류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와 비교할 때, 급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게 나왔다고 한다. 학습자의 모어와 관계없이, 모어에 부사격 조사의 문법범주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는 학습자들이 빈번하게 오류를 범하는 범주임을 보여준다.

특정 언어권과의 대조적인 방법으로 논의된 연구 신호경(2008)에서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에'와 '-에서'를 중국어 개사 '在'와의 대조를 통해 오류의 형태와 원인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에'의 오류 중 절반 이상이 '-에서'의 대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역할을 하는 중국어 개사와의 의미대조를 중심으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중국어 개사 '在'가 한국어 조사 '-에'와 '-에서'로 둘 다 가능하므로 학습자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에/에서'와 자주 결합하는 동사를 중심으로 문법적 연어로 제시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남수정(2010)에서는 몽골학습자들의 대치 오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오류가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를 대치한 경우라고 하면서 '-에'와 '-에서'의 의미를 담당하는 몽골어의 표지 '-д/т'는 '-에'와 '-에서'의 구별이 없이 쓰인다고 하였다. 이것은 중국어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러한 원인으로 언어 간의 간섭을 들 수도 있지만 다른 언어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한국어 문법 자체의 복잡성도 오류 발생의 중요한 한 원인으로 보았다. 김정은(2004)에서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조사 오용을 중간언어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조사 사용에 나타난 중간언어 특징을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용 양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조사 체계가 없는 중국어와 조사 체계가 있는 일본어 모두 조사의 오류 원인을 모국어의 간섭으로 보고 있다.

중간언어 관점에서 '-에'와 '-에서'를 논의한 연구는 김정은·이소영(2004)이 있다. 중간언어의 '보편성'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영어, 일어, 중국어 세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가 보이는 조사 오류 양상의 공통점을 추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조사 오류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모어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에'와 '-에서'가 서로 대치되어 쓰이고 있음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장소 명사 뒤에서 '-에'가 누락되고 '-에서'는 누락되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에'와 '-에서'의 중간언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에'와 '-에서'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시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에'와 '-에서'의 오류를 기존의 연구와 달리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고급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에'와 '-에서'의 용법을 살펴 제시할 것이다. 특히 중·고급학습자들을 위한 문어에서의 '에'와 '에서'의 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장소명사(위치, 소재)+에/에서'라는 단편적인 형태에만 한정하지 않고 복합적인 문장에서 용언뿐만 아니라 보조용언과의 결합형태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논의에서 장소명사나 위치, 소재를 나타내는 '명사+에/에서'의 형태뿐만 아니라 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출처', '근거'의 '-에서'의 의미기능 또한 중·고급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용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학습자들이 학문목적의 학문적 글쓰기를 수행할 때 '-에'와 '-에서'의 올바른 사용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3. '-에, -에서'의 실현 양상과 의미

이기동(1981)에서는 사전에 나와 있는 '-에'의 여러 가지 의미는 '-에'가 쓰인 문장의 다른 요소에서 추리되어 나온 것으로 보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에’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sup>2)</sup> 결론적으로 이기동(1981)에서는 ‘에’는 x와 y라는 개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너무 추상적이므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에’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한국인 모어화자들은 ‘-에/에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구어와 문어를 살펴보려고 한다. 구어에서는 조사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부사격 조사 ‘-에/에서’는 생략되지 않고 발화되므로 구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어에서는 어떤 동사류와 자주 공기하는지,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구어말뭉치와 문어말뭉치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에/에서’의 예문을 추출하기 위해 세종말뭉치에서 구어와 문어 전사파일을 임의로 선택하였다. 구어는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대화 ‘일상#1’로 3133어절이고 문어는 ‘텍스트언어학’으로 67661어절이다.<sup>3)</sup> 이 전사파일에서 ‘-에/에서’가 나타나는 문장들을 발췌하였다.

### 3.1. ‘-에’의 실현 양상 및 의미

우선 부사격 조사 ‘-에’가 문어와 구어에서 어떤 동사들과 공기되어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에’와 공기하는 보조용언을 살펴보기로 한다.

#### 3.1.1. 구어에서의 ‘-에’ + 동사

구어에 나타난 ‘-에’의 실현양상은 아래와 같다. 한국어 교재에서 주로 제시하

- 
- 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원인, 비교대상, 범위제한, 수단 방법 등 15가지의 예로 ‘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3) 어절 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므로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임의로 선택한 문어 텍스트이다. 다른 단행본인 대조언어학, 표현교육론과 같은 문어 텍스트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위 텍스트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에/에서’의 실현 양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고 있는 동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문2)

- a. 있으면 파도에 그냥 뜨잖아 알아서
- b. 서울에 온다고 막 그랬었는데
- c. 밖에까지 나와서
- d. 그 친구네 집에 가
- e. 서울에 안 사는구나
- f. 집에 갔겠다
- g. 아 나 집에 큰일 있어
- h. 너도 우리 집에 오면 해 주지 내가
- i. 나이트 클럽에 가려면

주제대화\_일상 #1, 전자전자자료

위 예문들을 통해 '-에'는 주로 '-에+가다/오다'의 형태가 자주 나타나고 그 외에 '있다/살다/뜨다/나오다'등의 동사와 공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사 '살다'는 4.3에서 다시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용언 '있다'는 형용사와 자동사로 쓰이는데 예문2g)의 '있다'는 '무엇이 실제로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쓰였다. 그리고 '가다, 오다, 뜨다, 나오다, 살다'는 자동사이다.

### 3.1.2 문어에서의 '-에' + 동사

(예문3)

- a. 집담회에 참석하였던
- b. 삽화나 그림 등에 붙인 보충설명을~~
- c. 뒷문장에 나타나는
- d. 추세에 있다. / 도서관에 있
- e. 텍스트에 관심을 두었다가 / ~에 근거를 두다
- f. 언어학에 국한시킨/국한한

g. 범주에 들다/ 넣다

21세기 세종계획 - 텍스트언어학

위의 예문들에 나타난 ‘-에’와 공기하는 동사들은 ‘참석하다, 들다, 나타나다, 있다, 두다, 붙이다,’ 등의 동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구어와 문어에 나타나는 ‘-에’와 결합하는 동사들을 분류해 보면 이동의 도착점이 필요한 ‘가다, 오다, 들다, 넣다, 나오다’ 등이 있고 어떤 장소나 지점에 접착점이 필요한 ‘두다, 들다, 있다, 뜨다’ 등이 있다.

위 예문3d)의 문장을 보면 ‘추세에 있다, 도서관에 있-’과 같이 용언 ‘있다’가 실현될 때 ‘명사+에’의 결합 형태이지만 ‘도서관’의 경우는 장소 명사이지만 ‘추세’의 경우는 장소명사가 아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언어교육과정에서 ‘-에 있다’의 형태를 ‘장소명사+에+ 있다’로 학습한다. 이것은 초급과정의 문법항목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에’와 ‘에서’를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학교에 가다’ ‘학교에서 공부하다’와 같이 ‘학교’라는 같은 장소명사이지만 ‘-에’ 다음에는 ‘가다/오다’와 같은 이동 동사가 실현되고 ‘-에서’ 다음에는 이동 동사 이외의 다양한 동사들이 실현된다고 배운다. 중·고급 단계로 올라가서도 학습자는 여전히 ‘-에/-에서’는 장소명사에 결합하는 형태만을 기억하고 있다. 장소명사 외에 결합하는 ‘-에/에서’의 문형에 대한 학습 없이 학부나 대학원에 진학한 후 학문적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에/-에서’의 쓰임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 3.1.3. ‘-에’ + 보조동사

다음으로는 ‘-에’와 공기하는 보조동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문4)

- a. 외국어 사전에 풀이 되어 있는
- b. 언어학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던
- c. 화용론을 바닥에 깔고 있다.

- d. 뿔러에 나와 있다. / 김경용에 나와 있다
- e. 조동일(1996: 머리말)에 잘 나타나 있다.
- g. S7과 S8 사이에는 역접의 접속사(C) '그러나'가 사용되어 있는데
- h. 바닥에 깔려 있는 의의(意義)의 연결망인 응집성
- I. 차봉희(1985: 서문), 허창운(1989: 294)에 자세히 나와 있다.
- j. 그 기운이 유럽 각 지역을 누비고 미주와 극동(極東)에까지 뻗쳐 있어
- k. 중국의 훈고학에 텍스트이론에 관련되는 요소가 많이 스며 있음을
- l. (11)에서도 네 개의 문장에 '나무'가 반복되어 있다.
- m. 말 속에 ~~의미가 들어 있는

21세기 세종계획 - 텍스트언어학

위의 예문을 보면 '-에'와 공기하는 보조용언은 예문4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어 있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조용언이 실현될 때는 조사 '-에'에 결합하는 명사가 구체적인 '장소명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 예문4)의 (d, e, I)는 저자 이름이지만 저자의 책 내용에 대한 언급이다. 예문4a, 4k) 또한 책의 내용에 어떤 것이 있다는 뜻이다.

문어에 자주 나타나는 '-에'에 결합하는 '용언+보조용언'의 형태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아/어 있-'의 형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문들과 달리 예4c)의 '화용론을 바닥에 깔고 있다'의 경우는 '깔다+고 있다'형태이지만 여기에서 '-고 있다'는 진행의 뜻을 나타낸다고보다는 '상태'의 의미에 더 가까워 보인다. '-고 있다'는 일반적으로 동사와 결합하여 그 동작이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지만 '입다, 쓰다, 신다'와 같이 착용동사의 경우는 '-고 있다'와 결합하여 입은 상태, (안경 등) 쓴 상태, 신은 상태를 나타낸다. 그것처럼 4c)의 '깔다'도 '-고 있다'가 결합했을 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보다는 움직임이 일어난 후 그 상태의 지속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에'에 결합하는 보조용언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에'가 상태의 보조용언과 빈번하게 공기하는 것은 '-에'가 가진 의미 자질과 관련이 있다. 조사 '-에'가 장소명사에 결합하여 그 장소에서의 움직임보다는 그 장소에 도착, 착지, 접촉할 때 그 지점을 가리킨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2. '-에서'의 실현 양상 및 의미

앞의 각주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에'와 '에서'를 동일한 문법범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김영희(1973), 박양규(1975)는 '에서'를 '-에'와 '-서'의 결합형으로 보고 있다. 김영희(1973)는 '-서'가 부사형(이서, 서)에 소급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것은 '-서'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있다(이시다, 시다)'에 토대를 두고 있어서 '-에서'에 이미 '있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에'와 '-에서'의 사용에서의 차이가 '있다'의 의미 여부에 기인하는 것인지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3.2.1. 구어에서 '-에서' + 동사

(예문5)

- a. 학교 세미나실에서 녹음할
- c. 나 그거 끝에서 오등 했어
- e. 우리 동네에서 하는
- f.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배웠었다?
- g. 근데 이제는 반에서 활동 안 하고 연극하느라고 바쁘잖아
- h. 반에서 활동도 잘 안 하는데.
- I. 집에선 다 해 먹잖아
- j. 속초에서 그냥 작전 짜기로
- k. 학관 앞에서 보자

주제대화\_일상#1, 전자전사자료(3133어절)

위의 예문들을 통해 구어의 '-에서'는 다양한 동사들과 공기하여 문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 동사가 모두 타동사라는 것이다. '-에서 -을/를 하다' '-에서 -을/를 보다/먹다/녹음하다/배우다'와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2.2. 문어에서 '-에서' + 동사

조사 '-에서'의 의미기능이 구어와 문어에서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문어 텍스트, 특별히 학술적 텍스트에 자주 나타나는 의미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 교수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글쓰기에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4)</sup>. 아래 예문은 문어 텍스트에 나타난 '-에서'의 실현 양상이다.

(예문6)

- a. 명제적 견해와 동태적 견해는 이젠베르크(1977)에서 가져왔다
  - b. 드레슬러(W. U. Dressler)(1981: 3)에서 가져왔다
  - c. 고영근(1990ab)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 d. 문예학에서 사용되는
  - e. 허창운·김태환(1996: 353-409)에서 볼 수 있다
  - f. 플레트(H. F. Plett)(1975)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 g. 텍스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h. 이성만(1992a)에서도 접할 수 있다
  - I. 텍스트이론이 서양에서 먼저 탄생되었다는 점
  - j. 텍스트연구의 흐름을 종합하는 자리에서 묶어서 다루기로 한다
  - k. 코세리우는 1971년 12월 3일 한글학회 50돌 기념강연회에서 강연회~
  - l. 오스트리아에서는 빈(Wien) 대학교의 드레슬러가 중심이 되어
  - m. 바야흐로 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 21세기 세종계획 - 텍스트언어학

위의 예문6)을 통해서 '-에서'는 다양한 동사들과 공기하여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어에서는 '-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명사에 결합하기보다는 모임, 회의, 저서 등을 표현하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언어교육과정에서

4) 문어, 특히 학술텍스트에 나타나는 '-에서'의 '출처', '근거'의 의미기능은 학습자들이 접해보지 못한 것이므로 예를 들면 '고영근(1990ab)에서 ~'와 같은 형태를 그들의 학문적 텍스트에서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에서’는 단순히 구체적인 장소와 결합하여 ‘출발’의 의미 또는 장소명사와 결합하는 그 동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만 학습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위의 문어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에서’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위의 예문에서는 대부분의 ‘-에서’가 ‘출처’나 ‘근거’의 의미기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어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에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어 텍스트를 작성할 때도 ‘출처’나 ‘근거’의 ‘-에서’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3.2.3. ‘-에서’+ 보조동사

다음은 부사격 조사 ‘-에서’와 보조동사의 결합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에서’와 공기하는 보조동사는 아래 예문과 같다. ‘-에서+ 고 있다’, ‘-에서+ 아/어 있다’, ‘-에서+아/어 오다’의 형태들이 자주 나타났다.

(예문7)

- a. 일본에서는 “Text”를 “텍스트”라 불러 원어(原語)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b. 학계의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 c. 서독의 텍스트언어학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 d. 서독 등 독일어 사용권에서 텍스트이론이 점차 자리를 잡아 가자
- e. 현재 독일에서 널리 참조되고 있는 <독일어문법개요>
- f.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 g. 생성문법모형에 통합됨에 따라 텍스트분석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 h. 한편 미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어학자들은 텍스트유형론의
- i. 담화분석이론은 미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노의 저술이
- j. 대체로 “시화(詩話)”라는 비평갈래 속에서 다루어져 왔다.

21세기 세종계획 - 텍스트언어학

위의 예문들을 통해 문어에서의 ‘-에서’와 공기하는 보조용언으로는 진행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고 있다’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문7d)와

예문7g, 7j)를 통해 '-아/어 가다, -아/어 오다'가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어 가다, -아/어 오다' 역시 진행의 의미가 드러나는 보조동사이다. 앞에서 '-에'의 경우 '-에+ 가다/오다'가 결합하는 것을 살펴본 바 있는데 '-에'가 단순히 이동동사인 '가다, 오다'와 결합하는 데 반해 '-에서'는 이동동사에 '지속적인 진행'의 의미가 포함된 '-아/어 가다, -아/어 오다'와 결합하는 것을 통해 '-에'와 '-에서'의 사용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용의 차이는 '-에서'가 '-에'에는 없는 '-서'가 가지는 '있다'의 의미자질 때문일 것이다.

### 3.3. '-에', '-에서' 둘 다 결합 가능한 용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에/에서'는 초기 한국어 학습에서 '-에+ 가다/오다/있다', '-에서+ 다양한 행동 동사' 처럼 공기하는 동사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

(예문8)

- a. 서울에 안 사는구나 (예문2)
- b.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예문6)
- c. 직접적으로는 두 학문이 연구 인력을 길러 내는 대학에서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동사 '살다'의 경우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에'와 '-에서' 모두 공기하여 발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살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묵다'는 '-에'와 '-에서' 모두와 공기 가능한 동사들이다.

(예문9)

- a. 대구에 살아요/ 대구에서 살아요.
- b. 호텔에 머무르고 있어요/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 c.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어요.
- d. 민박에 묵고 있어요/ 민박에서 묵고 있어요.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5)</sup>

① 체류하다 【…에】 【…에서】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다.

예) 외국에 체류하다 ㄴ

기자는 일본에서 4일간 체류한 뒤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② 살다 【…에】 【…에서】

예)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

③ 묵다 【…에서】 일정한 곳에서 나그네로 머무르다.

예) 친구 집에서 며칠 묵다

산행하다가 근처 절에서 하루를 묵었다.

④ 거처하다 【…에】 【…에서】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살다.

예) 그들은 비록 다섯 식구가 한 방에 거처할망정 오붓하게 지내고 있었다.

다섯 사람은 당분간 그 여관에서 거처하게 되었다.《이병주, 지리산》

⑤ 머무르다 【…에/에게】 도중에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다.

예) 버스가 정류장에 머무르다/

여행 중에 작은 호텔에 며칠 머물렀다.

나는 고향 집에 한 사나흘 머무르면서 쉴 생각이다.

위의 '③ 묵다'는 '에/에서' 둘다 공기한다는 예문은 없었고 '묵다'를 설명하는 예문에서 '-에서 +머무르다'가 있어서 '머무르다'가 '-에'와 '-에서' 둘 다와 공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였다. 사전에서 '살다'의 설명에 '-에/에서'와 함께 쓰이는 것에 대해 제시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살다'를 설명하면

5)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어화자들이 사용하는 사전을 보며 용례를 익히지는 않는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는 문법 항목에 집중한다.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에, -에서'는 초급의 문법항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중급 이후의 교재에서 문어적 쓰임의 '-에, -에서'의 의미기능을 노출시키고 문법항목으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서 '거처하다'를 사용하고 '거처하다'를 설명하면 '살다'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체류하다'의 설명에 '머무르다'가 '머무르다' 설명에 '묵다'가 사용되는 순환적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살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묵다, 거처하다'가 서로 공통된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에'와 '-에서' 둘 다 사용가능한 '살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묵다'의 동사들은 '-에'는 장소에 '도착점, 착지점'의 의미가 강조될 때 사용되고 '-에서'는 그 안에서의 '활동성, 움직임'의 의미가 강조될 때 실현되고 있다. '살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묵다, 거주하다' 동사는 공통적으로 어떤 장소에 도착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사들이다. 아래 예문을 보면 '-에'와 '-에서'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예문10)

- a. 학교 근처에 방을 구했어요.
- b. 학교 근처에서 방을 구했어요.

예문10)의 '구하다' 역시 '-에'와 '-에서' 둘 다 공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두 문장이 약간의 다른 영역에 초점이 놓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를 사용한 예문10)의 a는 '학교를 도착점으로 정하다'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즉 방의 위치를 정한 지점(학교 근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예문10)의 b는 '근처에서 방을 찾았다'라는 의미 즉, 학교 근처라는 영역 안에 있으면서 찾는 행위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 4. 나가는 글

지금까지는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에'와 '-에서'의 오류를 초급학습자들 위주로 논의해 왔다. 최근에 나온 한국어교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에’와 ‘-에서’ 단일형으로 교재에 제시되었다면 요즘은 ‘-에 가다/오다/있다’의 덩어리 형태로 제시하면서 한국어 학습 초기에 ‘-에/에서’ 오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간언어 ‘-에’와 ‘-에서’는 초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고급 학습자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에’와 ‘-에서’가 초급 문법 항목이지만 중·고급 학습자에 대한 교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문어에서의 ‘-에/-에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교수가 필요하다. 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출처’, ‘근거’의 ‘-에서’의 의미기능 또한 중·고급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기하는 동사와의 형태, 즉 ‘-에 가다/오다/있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에/-에서’의 사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첫째, ‘-에’와 공기하는 동사는 ‘-가다/오다/있다/살다’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보조용언으로는 대부분의 문장에서 상태 유지의 의미기능을 하는 ‘-아/어 있다’와 공기하여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에’의 의미기능이 움직임보다는 상태를 유지하는 의미 자질과 가까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에서’의 경우는 문장에서 다양한 동사와 공기하여 나타났고 보조용언은 진행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고 있다’와 상태 지속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아/어 있다’가 공기하여 나타났다. ‘-에서’는 ‘-에’와 달리 ‘-서’의 의미에서 ‘있다’의 의미자질이 있어서 그 영역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에서’는 진행의 보조용언 ‘-고 있다’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동하는 보조용언 ‘-아/어 가다, -아/어 오다’ 모두가 공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에/-에서’ 둘 다 가능한 동사들은 한국어 교재에서 따로 언급된 바가 없다. 하지만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구어에서 ‘-에/-에서’ 둘 다 가능한 동사들의 발화가 나타났다. 주로 ‘살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거처하다, 묵다’와 같은 일정한 장소에 이동하여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동사들이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발화를 토대로 상황에 맞는 ‘-에/-에서’의 자연스러운 사용 예문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문어와 구어 말뭉치

를 분석하여 공기하는 동사와 보조용언을 살펴본 결과 공기하는 보조용언의 형태는 '-에'나 '-에서'의 의미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보조 용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작업은 '-에/-에서'의 사용에서 혼란을 겪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에/-에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에서'와 자주 쓰이는 보조용언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에/-에서'가 어떤 동사 또는 보조용언과 공기하여 나타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발화가 가능하도록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의 '-에/-에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재에서 언급된 바가 없는 '-에/에서' 둘 다 공기하여 나타나는 동사와 보조용언의 형태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실제 발화에 나타나는 형태들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한국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한국어 교수를 위해 필요한 문법항목이 될 것이다.

■ 주제어 : 모어 화자들의 용법, '-에/에서', 보조용언과의 결합 양상, '-에서'의 의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 문어에서의 의미기능

### <참고문헌>

- 고석주 외(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 김영희(1973), 「초소격 조사 '에서'의 생성적 분석」, 『연세어문학』 5,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9-86면.
- 김정은 · 이소영(2004), 「중간언어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 - '을/를, 이/가, 에, 에서'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Vol. 24, 이중언어학회, 87-108면.
- 김정은(2004), 「일본어권 학습자의 조사 오용 양상」, 『한국어 교육』 Vol. 15 No.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면.
- 남수정(2010),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중간언어 연구 - 격조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경(2008),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에/에서' 오류 개선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Vol. 15, 국어교과교육학회, 217-238면.
- 이광호(1984), 「처격어미 {에}, {에서}의 의미와 그 통합 양상」, 『어문학논총』 Vol. 3,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87-105면.
- 이기동(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 Vol.- No. 173, 174, 한국학회 9-25면.
- 이윤하(1988), 「경험표현의 {-서}에 대한 연구-명사구에 나타나는 {-서}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황화상(2006),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 『배달말』 Vol.- No. 39, 배달말학회 371-393면.
- 허 용(2001), 「부사격 조사에 대한 한국어교육학적 접근」, 『이중언어학』 Vol. 19, 이중언어학회, 365-390면.

### <분석자료>

- 문어자료: 21세기 세종계획 - 텍스트언어학(61(6766어절))
- 구어자료: 21세기 세종계획- 주제대화\_일상#1(3133어절)

[Abstract]

## Approaches for Korean Education Regarding '-에, -에서' Seen through Korean Native Speakers' Articulative Usage

Park, Eu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Korean native speakers' usage of '-에' and '-에서' so that foreign learners can use '-에' and '-에서' more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how Korean native speakers use '-에' and '-에서' i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verbs combined with '-에' i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are found to be '가다, 오다, or 나오다' requiring the point of arrival after the movement and also '두다, 들다, 나오다, 있다, or 뜨다' needing the point of adhesion at a particular place or spot. On the contrary, as verbs combined with '-에서', there are various kinds of transitive verbs. Considering '-에/에서' combined with auxiliary predicates, it is natural that '-에' is combined with '-아/어 있다' meaning the continuance of a state. There are also rare cases of it combined with '-go itda'. In such cases, wearing verbs are combined with '-고 있다', and regarding their semantic functions, they reveal the meaning of 'a state': therefore, the meaning is not 'progression' but 'the continuance of a state'.

In most cases, '-eseo' is combined with '-고 있다' and '-아/어 오다 아/어 가다' which imply progression. This is because '-eseo' implying '있다' represents activity within the area. Based on the fact that Kim Yeong-hui (1973) deems that the meaning of '-서' is grounded on '있다 (이시다, 시다)' historically, this author, too, sees that '-eseo' is often combined with auxiliary predicates like '-고 있다' or '-아/어 가다, 오다' implying 'progression' because of the semantic

properties of 'itda' which '-seo' implies. From the use of verbs like '살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묵다, 구하다' which both '-에' and '-에서' can be applied to, we can see that '-e' is used to stress the meaning of 'the point of arrival or point of adhesion' in terms of placeness while '-eseo' stresses the meaning of 'activity or movement' within that.

It is needed not just to inform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of 'place name+에+가다/오다/있다' and 'place name+에서+various verbs' but to teach them about the forms of '-에+verb+아/어 있다' and '-에서+verb+고 있다' as well. They also have to learn in written language, '-에서' not only represents 'activity' in the place but has semantic functions like 'a source or ground' as well. Learners should also be taught about how to use them in written language, too.

**【Key words】** : Native speakers' usage, '-e/eseo', the aspects of combination with the auxiliary predicate, the meaning of '-e/eseo',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semantic functions in written language

---

## 박은정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한국문화정보학과 강사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한국문화정보학과

전자우편: parkej@kmu.ac.kr

---

이 논문은 2018년 4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5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어 5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